

[제2018-100호]

 한국문화원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4쪽	
배포일시	2018.11.29(목)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Curators' Talk (큐레이터의 이야기)

LA한국문화원, 뮤지엄과의 특별기획전을 마무리하며...



Torrance Art Museum <Dae-Bak, Super Cool>



Southern Utah Museum of Art <Encounter Korea>

- ▶ 행사명 : Curators' Talk (큐레이터의 이야기)
- ▶ 일시 : 2018.12.6(목) 6:30pm
- ▶ 장소 : LA한국문화원 아리홀 /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 LA 한국문화원
- ▶ 문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미술을 미 주류에 소개하기 위하여 토랜스아트뮤지움 (Torrance Art Museum)(9.22 - 11.10)과 ‘대박(Dae-Bak, Super Cool)’ 전시회를, 서든유타뮤지움 (Southern Utah Museum of Art) (10.12-12.29)과 ‘한국을 만나다(Encounter Korea)’ 전시회를 각 각 공동 주최 하는 등 올 하반기 내내 미국 현지뮤지움과의 전시로 분주하게 보냈다..

LA한국문화원은 현지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감안하여 이번 두 전시를 토랜스아트뮤지움의 관장 맥스 프레스네일과 서든유타뮤지움오브아트(SUMA)의 관장인 제시카 팰링을 초대하여 전시를 진행하게 된 동기와 그들이 느꼈던 한국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Curators’ Talk”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Max Presneill (관장 토랜스아트뮤지움 TAM)

2 년 전 LA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최희선과 함께 서울과 한국의 주요 미술 박람회 및 비엔날레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보았던 한국의 현대 시각 예술의 많은 부분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그 후 LA한국문화원과 나는 LA와 토랜스에는 한국인이 많이 있어 한국인과 한인 예술가가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을 탐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추세가 서구와 전통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하면 좋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Jessica Farling (관장 서든유타뮤지움오브아트 SUMA)

저는 2017년 5월에 SUMA에 임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은퇴한 Reese Summer 전 관장님이 남유타에서는 한국미술을 볼 기회가 적어 한국의 현대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며 한국문화원의 제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임용된 후 LA한국문화원과 3번의 미팅에 걸쳐 작가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으며, 기존에 SUMA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남유타 주민들에게 보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의견은 ?

Max Presneill (TAM)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작가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정교하면서도 섬세하게 작업해 나가는 기술적인 면이 전시 작품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사회와 역사의 관계가 작품 활동하는데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대변동, 사회적 구성과 분열 등이 많은 작품 속에 담겨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전시를 하면서 두가지 의미있는 중요한 점을 깨닫는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현대화된 한국작가들에게는 뛰어난 과학기술과 그점이 그들의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중첩 등이 그것입니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Jessica Farling(SUMA)

한국의 현대미술은 과학적 기술과 사물을 바라보는 오픈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서양의 미술과 동양의 사상이 잘 어우러져 반영되어있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현대미술은 근래의 세계미술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뛰어나 IT기술과 미술이 만나 더욱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작가들의 고민과 성찰, 그러면서도 위트가 넘치는 즐거운 일상을 소개하고, 자연과 현대기술이 접목된 작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3. 전시회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Max Presneill(TAM)

지금까지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전시는 한국인과 재미한인 예술

가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현대 미술로 창조하였는지를 볼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였습니다. 작가들의 개념적이면서도 창작성, 다양성, 그리고 압도적이며 구경거리 등이 적절하게 조화된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Jessica Farling(SUMA)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픈 첫날에만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그동안 유타에서 전시되어진 작품들과 차이가 있어 신선하고 재미있는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내 지역 학생들의 견학이 2000명 이상 예약이 되어있구요, 학생들의 견학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배씨머리띠 만들기, 민화그리기 등과 함께,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함께 만들어 보는 워크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한국문화원 최희선 전시담당자는 “한국의 현대미술은 한국사회가 짧은 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작가들이 자신의 아이덴티를 찾기 위해 부단히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IT강국답게 급변하는 세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대담함,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 밑바탕을 지켜주는 우리 문화가 스며들어있는 작품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로서 성장하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일상에 대한 소소한 즐거움 등이 담긴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Curator’s Talk” 프로그램은 12월6일(목) 저녁6시30분에 개최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323-936-3014)에게 하면 된다.